

고1  
공통국어1  
비상(강)

2027 고1 공통국어1 비상(강) 1(2) 함께 읽고 매체로 소통하기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이번 단원에서는 박승오의 「시계를 멈추고 나침반을 보다」 지문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찾는 4단계나 '나를 안다'의 의미 등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내용 일치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나, 매체 자료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과 비슷하죠. 첫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사람도 방황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을 겪습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적 방황'이라고 불러요. 모든 창조적인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만약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두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바늘이 꺾이며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로,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어요? 나침반 바늘은 멈추기 직전에 파르르 떨려요. 제법 오래 떨리죠. 마치 사람이 내 길을 찾긴 찾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와 같아요. 이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르게 되죠. 물론 내 꿈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침반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이 네 단계 중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스스로를 대입해 보세요. 아마 단번에 답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내 방향'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많으니까요.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 '방향성'이라고 불러요.

10대는 시추의 시기예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10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우물을 파는 시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에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시계를 잠시 멈추고 나침반을 들여다보세요.

1.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금 내가 진로 문제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내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겠어.
- ② 나에 대해 실험해 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 ③ 방향을 잡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위대한 인물들도 겪었던 '창조적 방황'의 시기라고 생각하며 견뎌야겠어.
- ④ 내 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속의 불안이나 떨림이 모두 사라져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겠구나.
- ⑤ 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생계나 재능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진정한 확신에 닿을 수 있겠어.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를 밀어주는 순풍인지 아닌지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 ② 삶의 방향을 확신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소거된다.
- ③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를 겪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경험의 단계로 진입한다.
- ④ '창조적 방황'이라는 개념은 방향을 찾는 과정의 생산적인 면과 시간 낭비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 ⑤ 작가가 말하는 '방향성'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상태를 말한다.

ㄹ.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ㅁ.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들을 열거의 방식을 통해 소개해야겠어.

ㅂ. 나와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더 신뢰감을 높일 수도 있겠군.

ㅅ. 글의 서두에서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흥미를 끌어야겠어.

- ① ㄱ, ㄴ, ㄷ, ㅅ
- ② ㄱ, ㄹ, ㅁ, ㅅ
- ③ ㄴ, ㅁ, ㅂ, ㅅ
- ④ ㄷ,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ㄹ, ㅅ

**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인물의 발언을 간접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10대의 시기와 삶의 방향을 찾는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진로 탐색 과정의 두려움에 관한 예시를 통해 독자가 주의할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윗글에 드러난 필자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신'의 단계에 이르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본다.
- ②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를 '나침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에 빗대고 있다.
- ③ 자신의 생계나 재능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때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탐색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삶의 방향 찾기 4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여긴다.
- ⑤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나침반 바늘이 회전하다가 꺾이며 흔들리는 움직임'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 <보기>가 윗글을 쓰기 전에 작성한 작가 노트라고 할 때, 글에 실제 반영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을 써 보아야겠어.

ㄴ. 한 사람이 방향성을 찾아가는 일을 비유할 수 있는 소재가 있을까?

ㄷ.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6. ㉔에서 쓰인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찬란한 슬픔의 봄을 등지고
- ②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③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 ④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맑은 웃음
- 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7. <보기>에서 매체의 종류와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수는 독자들과 댓글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블로그에 웹툰을 연재했다.

ㄴ. 민수는 긴급한 재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책을 출판했다.

ㄷ. 정민이는 교내 신문에 실을 기사를 작성하다가 지면 분량을 고려하여 내용을 요약했다.

ㄹ. 수진이는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면서 라디오보다 시각적인 현장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ㅁ. 영호는 누리 소통망(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며 자신은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8. ㉔의 과정에 따라 <보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학생1: 요즘은 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텔레비전 방송 영상이나 개인 방송 영상 같은 매체 자료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매체의 영향력이 커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

학생2: 맞아. 얼마 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진행한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지.

학생1: 우리는 책이나 자료를 읽으며 각자의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 알아봤잖아. 그중에서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아 ㉔매체 자료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학생2: 그래. 우리가 전달할 내용을 담기에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사회적 소통에 참여해 보는 게 좋겠어.

학생1: 그럼 매체의 영향력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지니고 매체 자료를 제작해 볼까?

<보기>

ㄱ. 제작한 매체 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평가한다.

ㄴ. 전달하려는 내용과 수용자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매체 유형을 선정한다.

ㄷ. 매체 자료를 만드는 목적과 핵심 내용,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ㄹ. 저작권을 준수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촬영 및 편집하여 매체 자료를 완성한다.

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 구성안을 짜고 매체 활용 전략을 세운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ㄴ-ㄷ-ㄹ-ㄱ-ㅁ
- ③ ㄷ-ㄴ-ㄹ-ㄱ-ㅁ
- ④ ㄷ-ㄹ-ㄴ-ㄱ-ㅁ
- ⑤ ㅁ-ㄷ-ㄴ-ㄹ-ㄱ

**9.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의 유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연령, 관심사, 배경지식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③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맞추어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신속한 전달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 ④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인지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등 윤리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
- ⑤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매체를 선정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과 비슷하죠. 첫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사람도 방황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을 겪습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적 방황’이라고 불러요. 모든 창조적인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만약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두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바늘이 꺾이며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로,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어요? 나침반 바늘은 멈추기 직전에 파르르 떨려요. 제법 오래 떨리죠. 마치 사람이 내 길을 찾긴 찾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와 같아요. 이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르게 되죠. 물론 내 꿈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침반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이 네 단계 중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스스로를 대입해 보세요. 아마 단번에 답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내 방향’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많으니까요.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 ‘방향성’이라고 불러요.

10대는 시추의 시기예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10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우물을 파는 시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ですよ.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에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시계를 잠시 멈추고 나침반을 들여다보세요.

(나) 민재: 얼마 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진행한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어.

예나: 우리는 책이나 자료를 읽으며 각자의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잖아. 그중에서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아 매체 자료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민재: 그래. 우리가 전달할 내용을 담기에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사회적 소통에 참여해 보는 게 좋겠어.

예나: 우리 모듬은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매체 자료를 제작해 보려고 해.

민재: 우리 모듬은 환경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는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주장을 담은 매

체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해.

예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맛집,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하려면 다양한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민재: 환경 문제의 실상을 간략하면서 인상 깊게 전달하려면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어.

예나: 매체 자료의 주제와 목적, 매체의 특성, 수용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해야겠어.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화면, 소리, 자막으로 나누어서 세부 내용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어.

민재: 카드 뉴스는 흐름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겠어. 카드 뉴스에 들어갈 이미지와 사진 등도 구상해 봐야겠어.

예나: 나는 영상 제작 방법을 쉽게 설명한 누리집이나 개인 방송을 찾아서 모둠 친구들에게 알려 주어야지.

민재: 나는 카드 뉴스를 만드는 데 유용한 제작 틀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모둠 친구들과 공유하면 도움이 될 거야.

####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사물의 움직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끊임없는 속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진로 탐색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른 단계별 구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창조적 방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방향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 ⑤ 나침반이라는 소재가 지닌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재는 매체의 파급력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예나는 매체 자료에 담아야 할 내용의 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민재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매체 유형을 모색하고 있다.

- ④ 예나는 자신이 속한 모둠원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수용자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두 학생은 모두 ‘환경 보호’라는 동일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체 자료를 기획하고 있다.

#### 12. 매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이나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는 정보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 ②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전파 매체는 현장감 있는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 ③ 전통적인 전파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쌍방향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 ④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SNS) 같은 디지털 매체는 대중이 정보의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 ⑤ 디지털 매체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특징이 있다.

13. <보기>는 예나의 의견과 ㉠에 들어갈 문장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이다. ㉠을 수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예나: 안녕하세요? [ ㉠ ] 실제로 여행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우리 동네 여행기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매체 자료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매체 자료의 수용자를 제시하는 문장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

- ① 지역 정보의 검색창, 우리 지역에 묻어나는 문화가 궁금한 분들께 소개합니다.
- ② 생생한 정보가 담긴 영상, 우리 지역의 소식이 궁금한 분들께 알립니다.
- ③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④ 장인의 손길이 깃든 공예품,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싶은 분들께 알립니다.
- ⑤ 맛과 멋이 살아 있는 거리 사진, 우리 학교의 소식이 궁금한 학우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14~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과 비슷하죠. 첫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사람도 방향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을 겪습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적 방향’이라고 불러요. 모든 창조적인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만약 내가 방향하지 않는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두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바늘이 꺾이며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로,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어

요? 나침반 바늘은 멈추기 직전에 파르르 떨려요. 제법 오래 떨리죠. 마치 사람이 내 길을 찾긴 찾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와 같아요. 이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르게 되죠. 물론 내 꿈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침반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이 네 단계 중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스스로를 대입해 보세요. 아마 단번에 답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내 방향’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많으니깐요.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 ‘방향성’이라고 불러요.

10대는 시추의 시기예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10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우물을 파는 시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에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시계를 잠시 멈추고 나침반을 들여다보세요.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이론을 비판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어려운 전문 용어의 어원을 풀이하여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③ 대상의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대조하여 절충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독자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

15.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진로 계획서의 개요이다. ㉠~㉥의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진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로 살아남기</li> <li>• ㉠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운영</li> </ul>
2. 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중기/㉣장기</li> </ul>
3. 고려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자료</li> </ul>

- ① ㉠: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비싸게 되파는 경매 회사를 설립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 ② ㉡: 예술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미술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관련 학과 진학 정보를 탐색한다.
- ③ ㉢: 대학 진학 후 다양한 미술 창작 활동을 경험하고, 예술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④ ㉣: 문화 예술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이동식 미술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예술의 가치를 나눈다.
- ⑤ ㉤: 『예술가로 살만합니다』와 같은 책을 읽으며 예술가로서 자립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참고한다.

## 정답 및 해설

### 내신형 기출 문제

#### 1. [정답] ④

글쓴이는 4단계인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서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나침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꿈에 대해 확신하더라도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글쓴이는 방향하지 않는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방향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② 2단계인 ‘경험과 모색’ 단계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자신을 실험한다고 언급하였다.

③ 글쓴이는 1단계의 혼란을 ‘창조적 방황’이라 명명하며 모든 창조적 인물들이 거친 과정이라고 하였다.

⑤ 3단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면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른다고 하였다.

#### 2. [정답] ①

글쓴이는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여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목적지(방향)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도움이나 환경(바람)이 아무런 효용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확신 단계에서도 미세한 떨림(두려움)은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두려움이 소거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③ 글의 순서상 ‘경험과 모색(2단계)’을 거친 후에 ‘두려움(3단계)’의 시기가 온다.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④ 글쓴이는 창조적 방황을 방향을 찾기 위한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시간 낭비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를 안다’는 것은 세 가지(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를 아는 것이지만, 필자가 정의한 ‘방향성’은 그중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의 교집합을 의미한다.

#### 3. [정답] ①

글쓴이는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이 네 단계 중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나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따옴표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④ 10대의 시기를 ‘시추’에,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을 ‘나침반’에 비유하고 있으나, 방향을 찾는 단계는 세 단계가 아니라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⑤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두려움을 나침반의 떨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공감을 얻기 위함이지 주의할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4. [정답] ①

ㄱ. 뒷글은 10대를 대상으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ㄴ. 방향성을 찾아가는 일을 나침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글을 쓰기 전 했을 고민으로 적절하다.

ㄷ.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내 방향’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ㄹ.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와 유사한 생각을 한 철학자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감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ㄷ.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ㄷ. 유명한 철학자의 말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다.

#### 5. [정답] ⑤

필자는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돌다가 꺾이고 흔들리며 멈추는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이 진로를 탐색하고 정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르러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이를 나침반이 멈춘 후에도 지구 자전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에 비유했다.
- ② 나침반 바늘이 멈춘 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확신’ 단계에 대한 비유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는 멈추기 직전 파르르 떨리는 모습에 비유했다.
- ③ 생계나 재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탐색하는 시기는 구분되어 있으며,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을 탐색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필자는 4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6. [정답] ④

- ②는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 관념과 원관념을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번 또한 ‘같이’라는 조사를 사용하여 웃음을 햇발에 빗대고 있으므로 직유법이 쓰인 표현이다.
- ① ‘찬란한 슬픔’에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한 역설법이 쓰였다.
- ② ‘소리 없는 아우성’은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역설법이 쓰였다.
- ③ ‘내 마음은 호수요’와 같이 ‘A는 B다’의 형태로 대상을 빗대는 은유법이 쓰였다.
- ⑤ ‘어둠’이 생명을 낳는 주체로 표현되어 활유법(혹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의인법)이 쓰였다.

7. [정답] ②

- ㄱ. 디지털 매체인 블로그의 쌍방향 소통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
- ㄴ. 인쇄 매체인 신문이 지면의 제약을 받는다는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 ㄷ. 책은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에 적합하지만, 긴급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대량 전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ㄹ. 텔레비전은 영상과 소리를 함께 전달하므로 소리만 전달하는 라디오보다 현장감이 뛰어나다.
- ㅁ.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서는

대중도 정보의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8. [정답] ③

- 매체 자료 제작은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 매체 선정하기 → 내용 구성 및 전략 수립하기 → 표현 및 제작하기 → 공유 및 평가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목적 및 수용자 분석(ㄷ) → 매체 선정(L) → 구체적 기획 및 전략 수립(ㄹ) → 제작 및 출처 표기(ㄴ) → 게시 및 평가(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①, ②, ④, ⑤ 매체 자료 제작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③

-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체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정확성을 희생하고 신속성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 ① 정보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출처 표기는 필수적이다.
- ②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수용자 분석은 제작 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④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⑤ 매체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매체를 선택해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0. [정답] ②

- (가)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속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①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통해 진로 탐색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진로 탐색의 과정을 첫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방향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창조적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⑤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겪는 과정을 통

해 인생의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11. **정답** ⑤

예나는 '우리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매체 자료를, 민재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환경 캠페인 매체 자료를 제작하려 한다. 따라서 두 학생이 동일한 주제와 목적으로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민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진행한 캠페인이 큰 관심을 끈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예나는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하고 있다.
- ③ 민재는 환경 문제의 실상을 전달하기 위해 카드 뉴스 형식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등 내용에 맞는 매체를 선택하고 있다.
- ④ 예나는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은 모뎀 친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로 설정하고 있다.

12. **정답** ③

전통적인 전파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등)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단방향적 특성이 강하다.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쌍방향성은 디지털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이다.

- ① 인쇄 매체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
- ② 전파 매체는 영상과 소리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 ④, ⑤ 디지털 매체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여 올릴 수 있으며, 댓글 등을 통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13. **정답** ①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매체 자료의 비유적 표현'과 '수용자'가 모두 드러나야 한다. 예나의 모뎀은 '지역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검색창'에 비유하고, 수용자를 지역 문화가 궁금한 사람으로 설정한 ①이 가장 적절하다.

- ② 매체 자료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 ③, ④, ⑤ 예나가 제작하려고 하는 매체 자료의 주제와 맞지 않다.

14. **정답** ③

이 글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침반의 움직임에 빗대어 네 단계(방향과 혼란 → 경험과 모색 → 두려움 → 확신)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층적이고 단계적인 설명 방식은 독자가 글쓴이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전문가(몽테뉴)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용어의 어원 풀이가 주된 서술 방식이 아니다.
- ④ 상반된 관점을 대조하거나 절충안을 찾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삶의 태도를 조언하고 있다.

15. **정답** ①

㉠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단순히 작품을 비싸게 되팔아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②, ③, ④ 관련 도서 읽기, 진학 정보 탐색하기, 대학 진학 후의 활동, 프로젝트 기획 등 진로 목표에 맞는 적절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다.
- ⑤ 진로에 맞는 적절한 도서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